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청년의 결혼, 출산, 노동 등 10년간 가치관 변화 분석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주제별 기획보도를 제공 중이다.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2023.6.16.)’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2023.7.11.)’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한 일·가정 양립과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사회조사」를 통해 저출산 개선 정책대상인 청년층의 결혼, 출산, 노동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분석하였다.

1. 가족

- **(결혼)**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청년 비중은 10년 전보다 감소하여, '22년에는 청년 3명 중 1명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비혼동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2년에는 청년 10명 중 8명이 비혼동거 동의
- **(자녀계획)** '22년 청년 중 절반 이상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
- **(가족관계 만족도)** '22년 청년 10명 중 7명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며,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
- **(입양의사)** 입양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 비중은 10년 전보다 감소하여, '22년에는 청년 10명 중 3명이 입양의사가 있다고 응답
- **(가사분담)**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과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중은 모두 증가세이나, 생각과 실태 간 차이 존재

- (이혼·재혼)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좋다는 청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재혼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
- (부모부양) '22년 청년 10명 중 6명은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비중은 10년 전보다 증가

2. 노동

- (직업선택기준) '21년 청년은 직업선택 시 수입, 안정성, 적성·흥미 순으로 중시하나, 19~24세 연령계층은 수입, 적성·흥미, 안정성 순으로 중시
- (선호직장) 10년 전에는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이 국가기관, 대기업, 공기업 순이나, '21년에는 공기업, 국가기관, 대기업 순으로 선호
- (여성취업) '21년 청년이 생각하는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부담(46.3%), 사회적 편견(18.5%), 불평등한 근로 여건(13.8%) 순임
- (일·가정) 일과 가정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1년에는 청년 2명 중 1명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가장 중시

3. 교육과 건강

- (교육기회 충족)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청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년에는 청년 10명 중 8명이 교육 기회를 충족
- (건강평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증가세로, '22년에는 청년 10명 중 7명이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
- (스트레스) 10년 동안 전반적인 일상생활,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의식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42-481-2233)
		담당자	사무관	이현배 (042-481-2242)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2023. 8.

일 러 두 기

□ 통계청에서는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청년의
의식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 *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 연령 기준에 따라 19~34세
- * 가사분담의 전체 인구(19세 이상)를 제외하면 전체 인구 연령은 사회
조사 대상 기준인 13세 이상
- * 선호하는 직장은 19~2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씩 조사합니다.

- * (짜수해)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홀수해)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자료는 통계청 누리집(<https://kosta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단위: %)



10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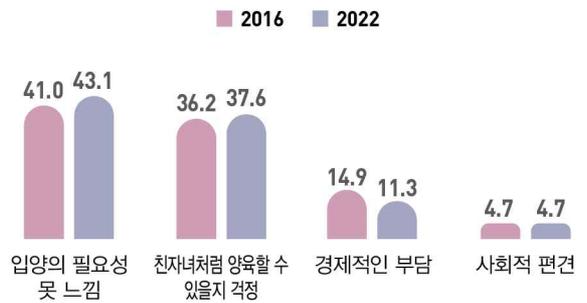
현재



결혼을 안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2022년)



입양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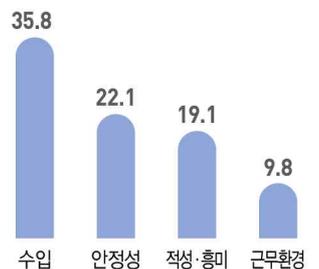
가사 분담, 누가 주로 하나요?



선호하는 직장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2021년)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원하나요?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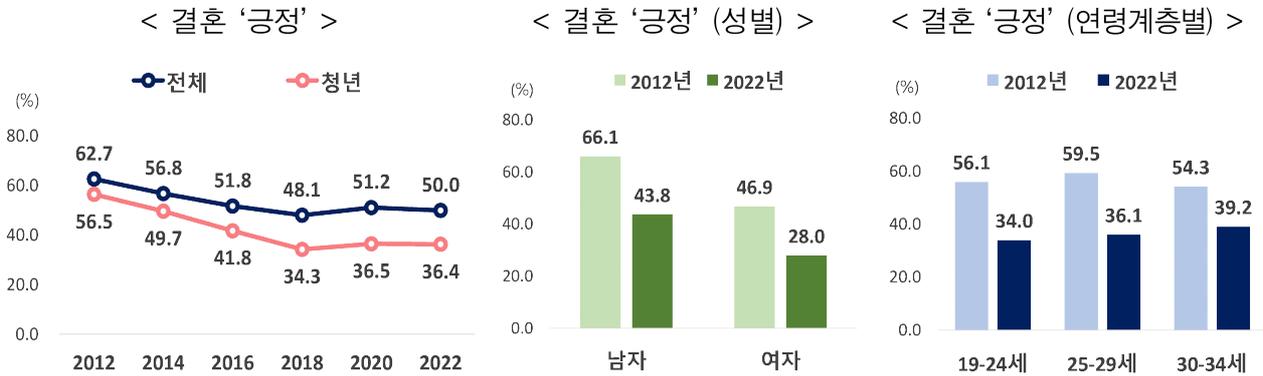
I. 가족	1
II. 노동	9
III. 교육과 건강	13
【참고1】 주요 인구 통계	15
【참고2】 사회조사 개요	16

I.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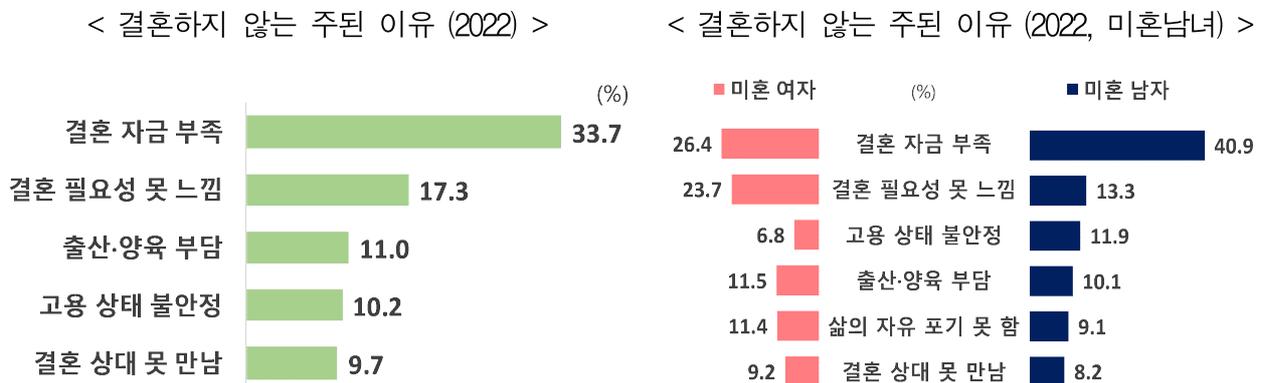
1. 결혼 인식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보다 감소

- '22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56.5%)보다 20.1%p 감소한 36.4%이며, 전체 인구(50.0%)보다는 13.6%p 낮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3.8%, 여자는 28.0%로 여자가 남자보다 15.8%p 낮으며, 남녀 모두 10년 전보다 각각 22.3%p, 18.9%p 감소함
 - 연령계층별로 보면 '22년 25~29세는 36.1%로, 10년 전보다 23.4%p 감소함



- '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33.7%),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낌(17.3%) 순임
 - 성별로 보면 미혼 남자는 결혼자금 부족(40.9%)이 가장 많으며, 미혼 여자는 결혼자금 부족(26.4%), 결혼 필요성 못 느낌(23.7%)이 절반을 차지함



2. 비혼 동거, 결혼생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청년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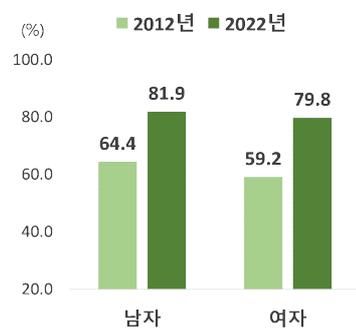
□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2년에는 80.9%의 청년이 비혼 동거에 동의함

- 전체 인구의 65.2%가 비혼 동거에 동의하였고, 동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연령계층별로 보면 19~24세가 동의 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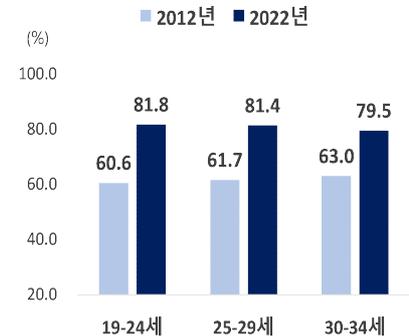
< 비혼 동거 '동의함' >



< 비혼 동거 '동의함' (성별) >



< 비혼 동거 '동의함' (연령계층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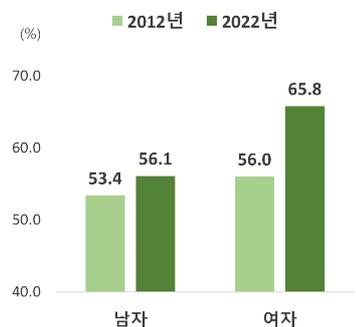
□ '22년 결혼생활에서 가족 간의 관계보다 부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60.7%로, 10년 전(54.7%)보다 6.0%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가족 간의 관계보다 부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여자(65.8%)가 남자(56.1%)보다 9.7%p 높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19~24세 55.2%, 25~29세 61.9%, 30~34세 65.6%로 연령계층이 높을수록 부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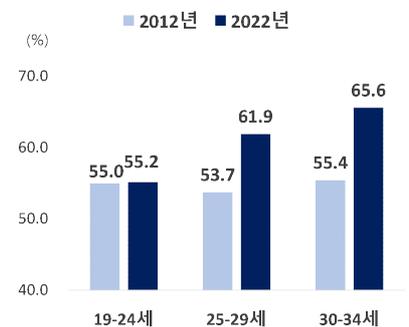
< 가족 간 관계보다 부부 우선 >



< 가족 간 관계보다 부부 우선 (성별) >



< 가족 간 관계보다 부부 우선 (연령계층별) >



3. 자녀 계획

과반의 청년은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 비혼 출산 동의는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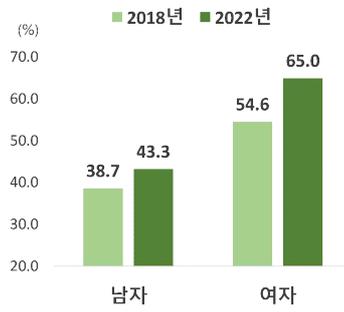
□ '22년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53.5%이며 '18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전체 인구 중 34.7%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18년(30.5%)보다 4.2%p 증가함
- 여자(65.0%)가 남자(43.3%)보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고, 연령계층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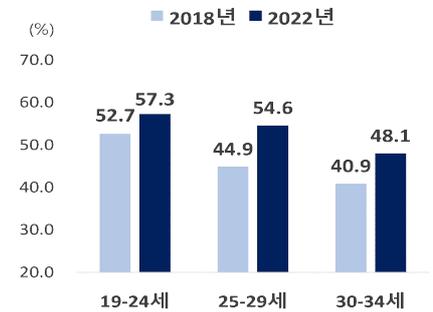
< 결혼 후 자녀 가질 필요 없음 >



< 결혼 후 자녀 가질 필요 없음(성별) >



< 결혼 후 자녀 가질 필요 없음(연령계층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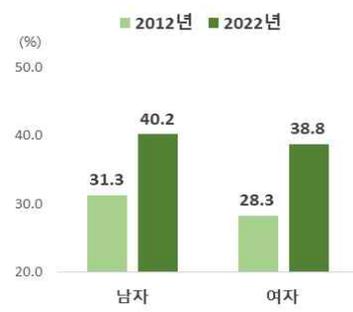
□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2년에는 39.6%의 청년이 비혼 출산에 동의

- 전체 인구 중에서는 34.7%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전체 인구의 비혼 출산 동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 남자(40.2%)가 여자(38.8%)보다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 비중이 높았고, 19~24세(38.8%)의 동의 비중은 10년 전(26.9%)보다 11.9%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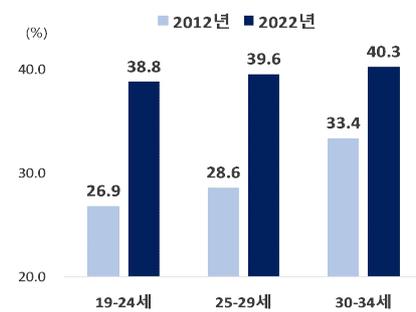
< 비혼 출산 '동의함' >



< 비혼 출산 '동의함'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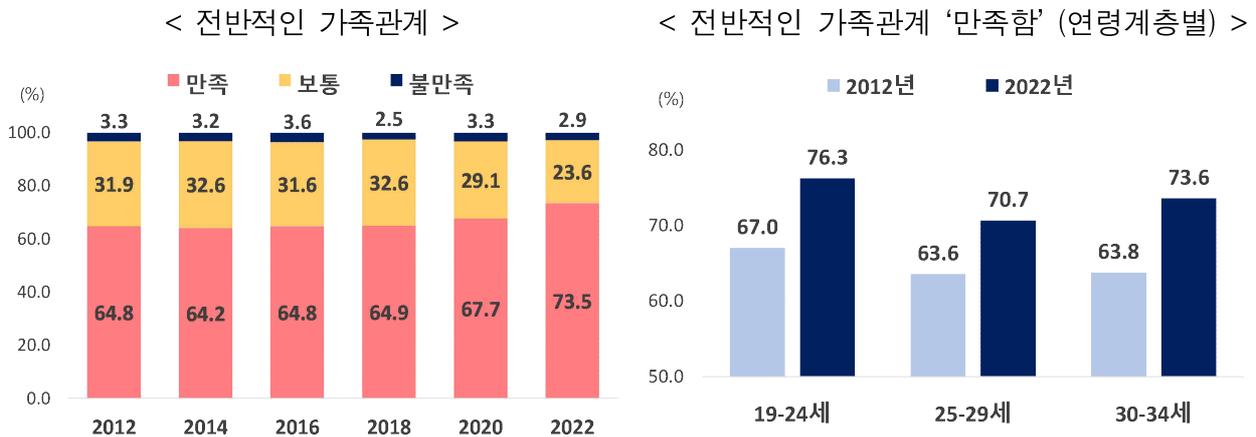
< 비혼 출산 '동의함' (연령계층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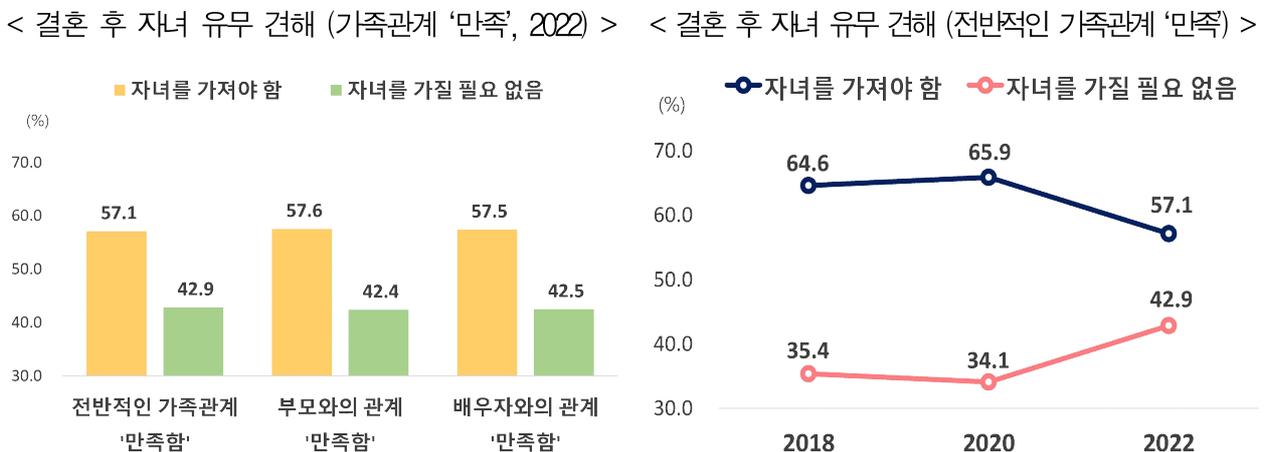
4. 가족관계 만족도

청년들은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결혼 후에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

- '22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3.5%로 꾸준히 증가함
 - 모든 연령계층에서 '22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10년 전보다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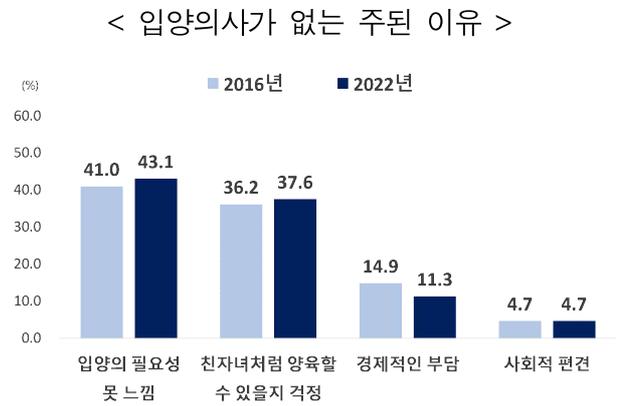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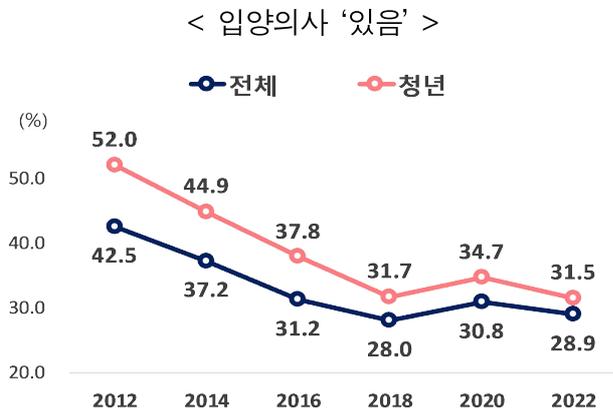
- '22년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한 청년 중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한 청년 중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57.6%)은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중(42.4%)보다 높음
 - '22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한 청년 중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42.9%로 4년 전(35.4%)보다 7.5%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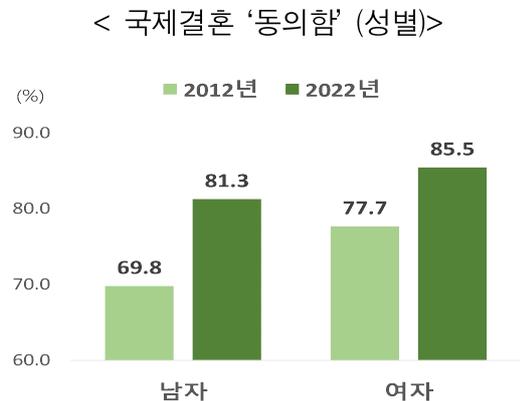
5. 입양 및 국제결혼

청년의 입양의사는 10년 전보다 감소해 '22년에는 청년 10명 중 3명이 긍정적

- 입양의사가 있는 청년의 비중은 감소세로 '22년에는 청년 중 31.5%가 입양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년 전(52.0%)보다는 20.5%p 감소함
 - 전체 인구 중 28.9%는 입양의사가 있으며 10년 전(42.5%)보다 13.6%p 감소함
 - 입양의사가 없는 청년들이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43.1%),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되어서(37.6%) 순임



- '22년 국제결혼에 대해 청년의 83.3%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10년 전(73.8%)보다는 9.5%p 증가함
 - 여자(85.5%)가 남자(81.3%)보다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고, 남녀 모두 10년 전보다 각각 11.5%p, 7.8%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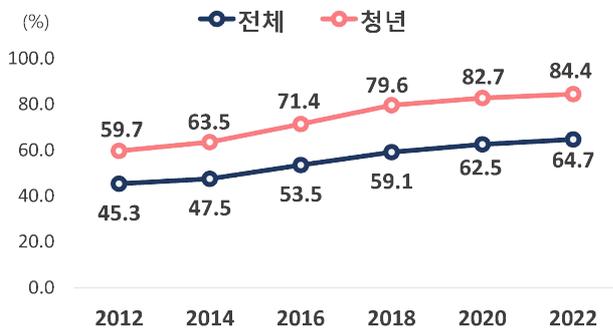


6. 가사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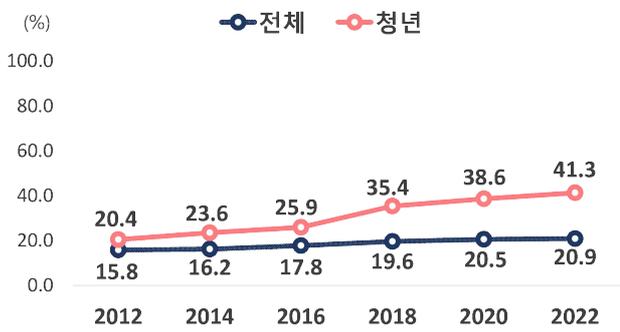
공평 분담 동의 및 실제 공평 분담 비중은 모두 증가세이나, 생각실태 간 차이 존재

-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년에는 84.4%로 10년 전(59.7%)보다 24.7%p 증가함
 - 실제로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중은 41.3%로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84.4%)의 절반 수준임
 - '22년 실제로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청년의 비중은 41.3%로 지난 10년 동안 증가세이며, 전체 인구의 비중(20.9%)보다는 20.4%p 큼

< 가사분담 '부부 공평'에 대한 견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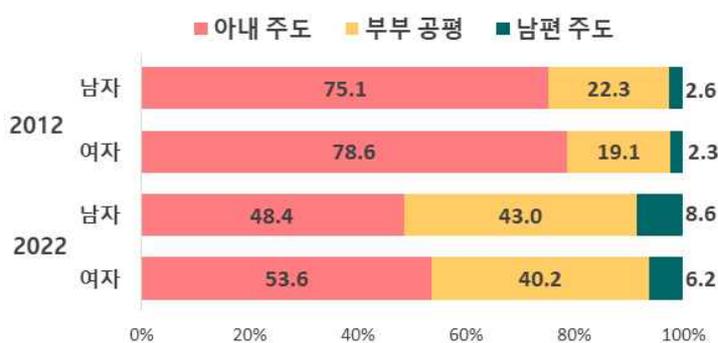


< 가사분담 '부부 공평' 실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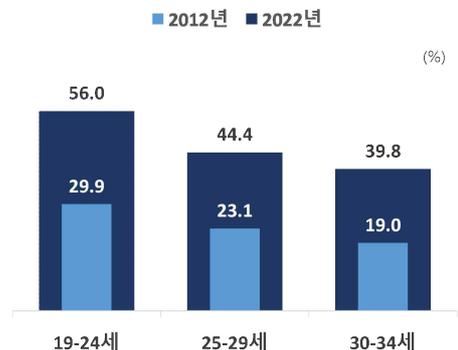


- '22년 실제로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중을 보면, 남자 43.0%, 여자 40.2%이며, 10년 전보다 남녀 모두 증가함
 - 연령계층이 낮을수록 실제로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10년 전보다 비중의 증가폭도 큼

< 가사 분담 실태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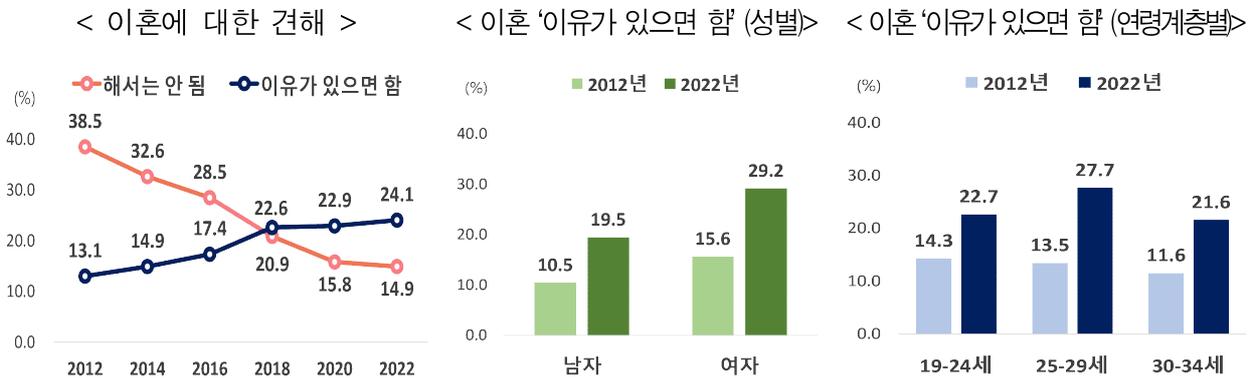
< 가사 분담 '부부 공평' 실태 (연령계층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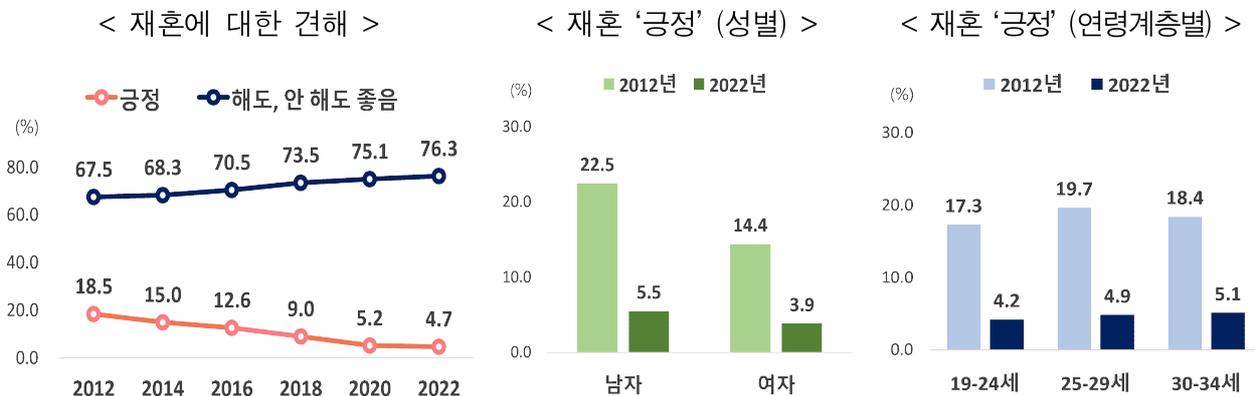
7. 이혼, 재혼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계층별로는 25~29세에서 비중이 높았음
 - 10년 전보다는 여자가 13.6%p로 남자(9.0%p)보다 크게, 25~29세가 14.2%p로 다른 연령계층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 재혼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22년에는 4.7%로 10년 전(18.5%)보다 13.8%p 감소함
 - '22년 재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청년 비중은 10년 전(67.5%)보다 8.8%p 증가한 76.3%이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재혼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남녀 및 모든 연령계층에서 10년 전보다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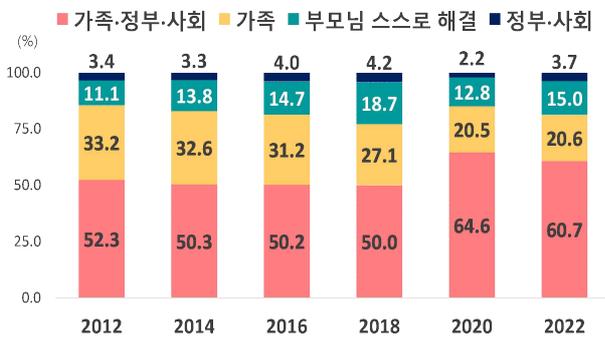
8. 부모부양

청년 10명 중 6명은 가족·정부·사회가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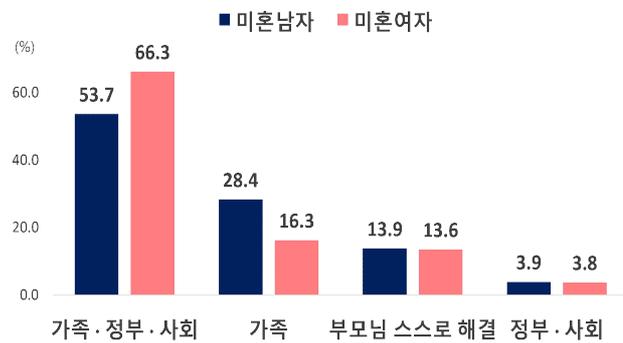
□ '22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60.7%로 10년 전(52.3%)보다 8.4%p 증가함

-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 남자(28.4%)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가족·정부·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 여자(66.3%)가 상대적으로 높음

<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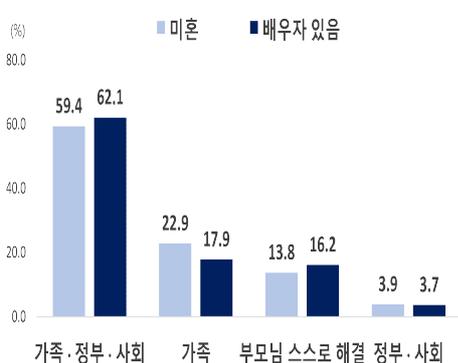
<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2022, 미혼남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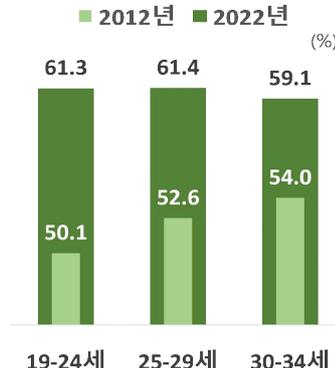
□ '22년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미혼 청년(22.9%)이 배우자가 있는 청년(17.9%)보다 5.0%p 높음

- 노후를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배우자가 있는 청년(16.2%)이 미혼 청년(13.8%)보다 2.4%p 높음
- 10년 전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계층에서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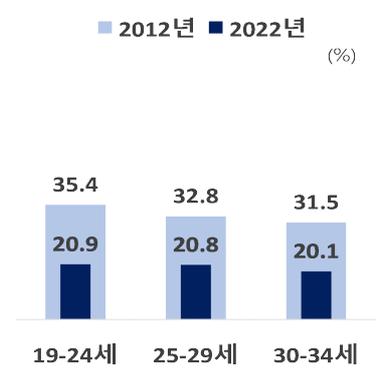
<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2022, 혼인 여부) >



< 부모부양 (가족·정부·사회) >



< 부모부양 (가족) >



Ⅱ.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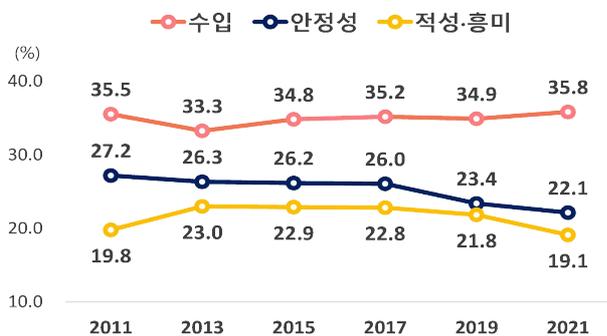
1. 직업 선택

직업 선택 시 수입, 안정성, 적성·흥미 순으로 중시하나 연령계층별로는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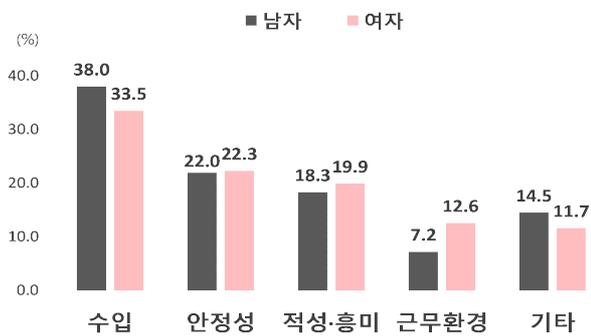
□ '21년 청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35.8%), 안정성(22.1%), 적성·흥미(19.1%), 근무환경(9.8%) 순임

- 직업선택 시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은 10년 동안 감소세임
- 남녀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수입, 안정성, 적성·흥미 순이며, 근무환경은 여자(12.6%)가 남자(7.2%)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

< 직업 선택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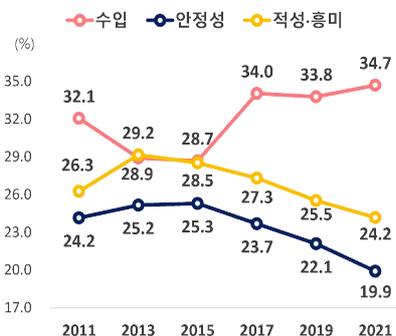
< 직업 선택 요인(2021, 성별) >



□ 19~24세 청년은 25~34세 청년과 달리 직업 선택 시 안정성(19.9%)보다 적성·흥미(24.2%)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 연령계층별로 보면 19~24세 청년은 수입, 적성·흥미, 안정성 순으로, 25~29세, 30~34세 청년은 수입, 안정성, 적성·흥미 순으로 중시함

< 직업 선택 요인 '19~24세' >



< 직업 선택 요인 '25~29세' >



< 직업 선택 요인 '30~34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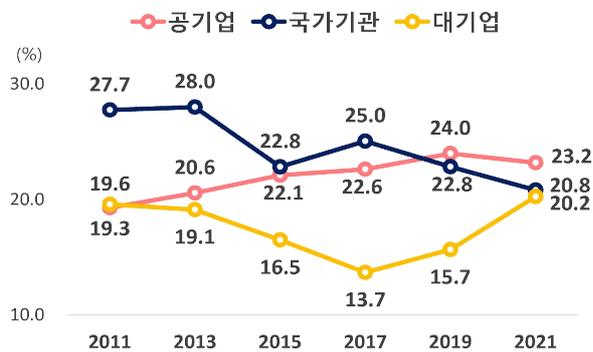


2. 선호 직장과 일자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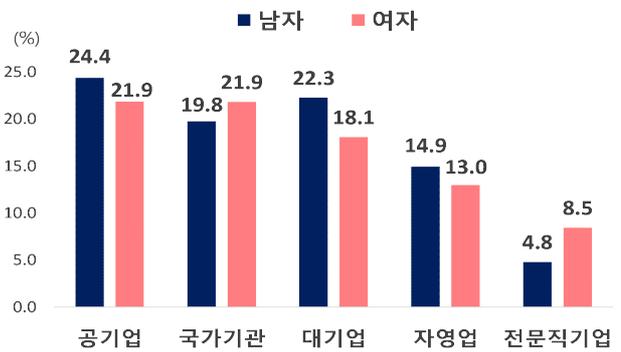
'21년 청년은 공기업, 국가기관, 대기업 순으로 선호하며, 일자리 만족도는 증가세

- 10년 전 청년의 선호 직장은 국가기관(27.7%), 대기업(19.6%), 공기업(19.3%) 순이나 '21년에는 공기업(23.2%), 국가기관(20.8%), 대기업(20.2%) 순임
- 10년 동안 국가기관 선호도는 감소세, 공기업 선호도는 증가세이며 '17년 이후에는 대기업 선호도가 증가세를 보임
-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공기업을 가장 선호하나, 남자는 국가기관(19.8%)보다 대기업(22.3%)을, 여자는 대기업(18.1%)보다 국가기관(21.9%)을 선호함

< 선호하는 직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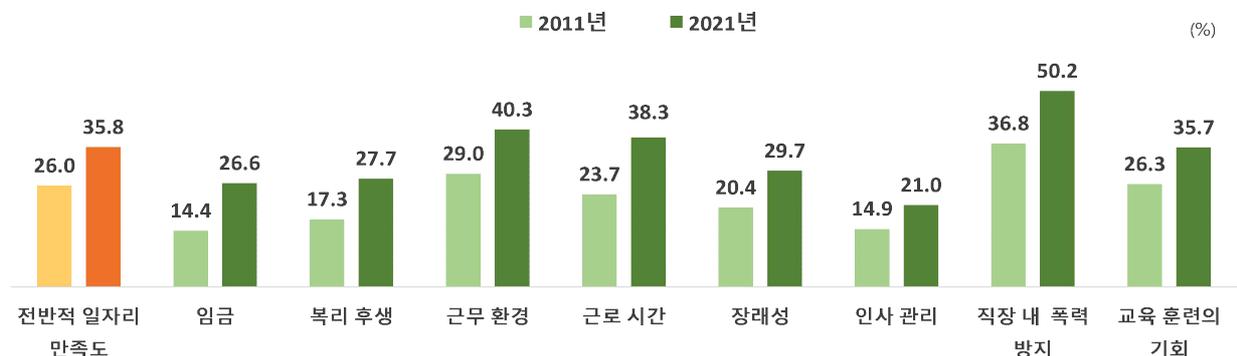


< 선호하는 직장 (2021, 성별) >



- '21년 청년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35.8%로 10년 전(26.0%)보다 9.8%p 증가하였으며, 각 근로 여건별로도 10년 전보다 만족도가 증가함
- 근로 여건별로 보면, 10년 전보다 근로 시간(14.6%p), 직장 내 폭력 방지(13.4%p), 임금(12.2%p), 근무환경(11.3%p) 등의 순으로 증가함

< 일자리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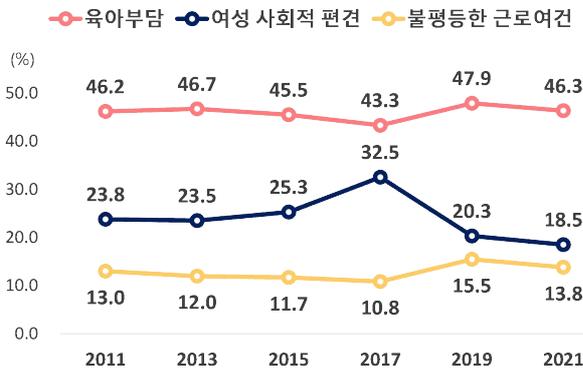
3. 여성 취업

'21년 청년 남녀 모두 육아 부담을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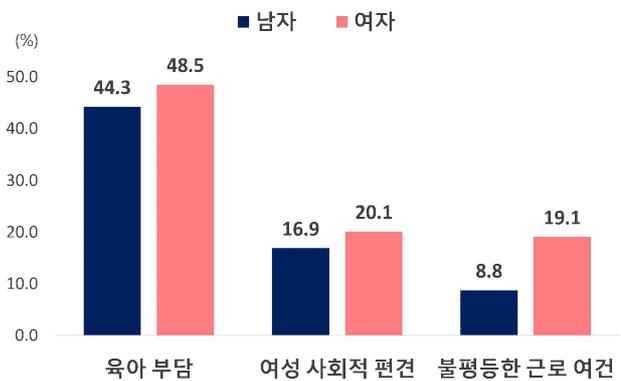
□ '21년 청년이 생각하는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 부담(46.3%), 사회적 편견(18.5%), 불평등한 근로 여건(13.8%) 순임

○ 남녀 모두 육아 부담이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함

< 여성 취업 장애 요인 >



< 여성 취업 장애 요인 (2021,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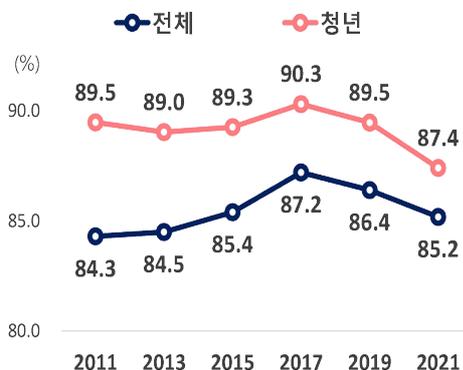


□ '21년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87.4%로 전체 인구(85.2%)보다 소폭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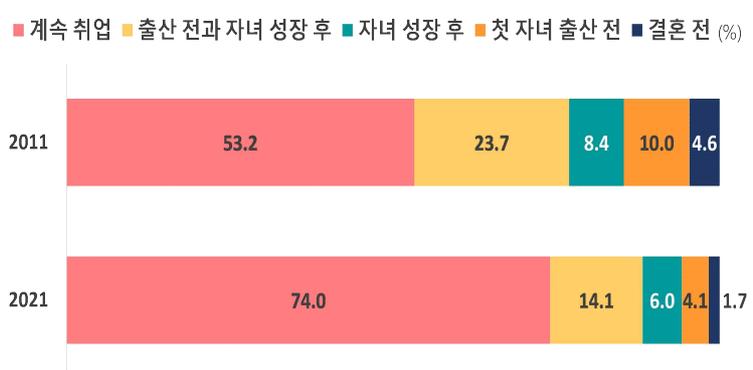
○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가사와 관계없이 계속 일하는 것(74.0%)을 선호하였으며,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14.1%)가 다음으로 많았음

○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가사와 관계없이 계속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10년 전보다 20.8%p 증가했으며,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에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9.6%p 감소하였음

< 여성 취업 견해 '직업 가짐 좋음' >



< 직업을 가졌을 때 선호하는 취업 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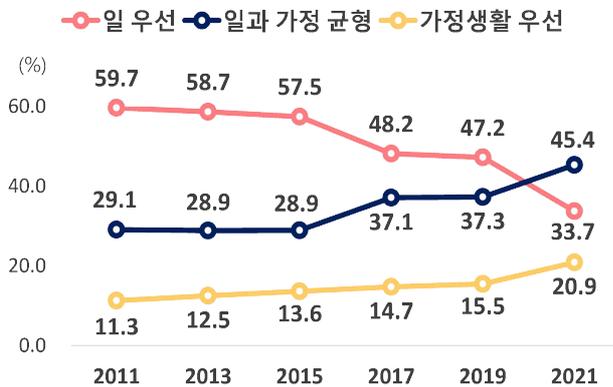


4. 일·가정 양립, 고용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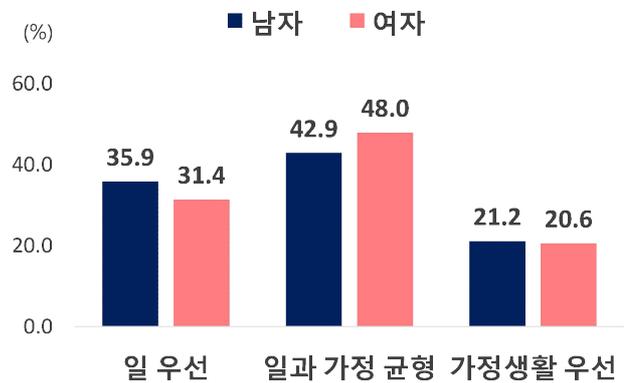
'21년 청년의 2명 중 1명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 '21년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청년의 비중은 45.4%이며, 일이 우선인 청년은 33.7%, 가정생활이 우선인 청년은 20.9%를 차지함
 -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비중과 가정생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이 우선인 비중은 꾸준히 감소함
 - 남자는 일을 우선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여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



<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2021,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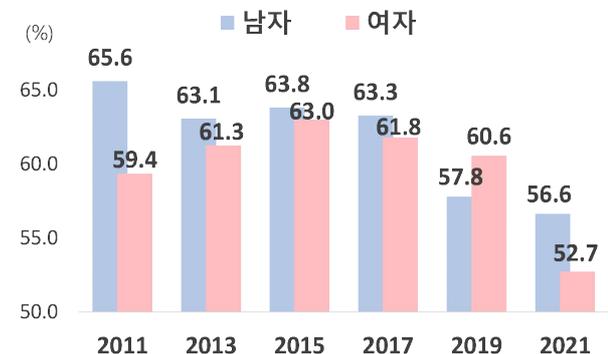


- '21년에는 과반(54.8%)의 청년이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며, 10년 전(62.8%)보다는 8.0%p 감소함
 - 남자(56.6%)가 여자(52.7%)보다 고용 불안함을 느끼는 비중이 높으며, '17년 이후에는 남녀 모두 고용 불안함을 느끼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함

< 고용 안정성 '불안함 느낌' >



< 고용 안정성 '불안함 느낌'(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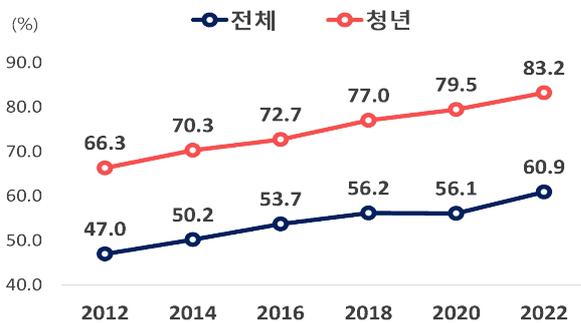
Ⅲ. 교육과 건강

1.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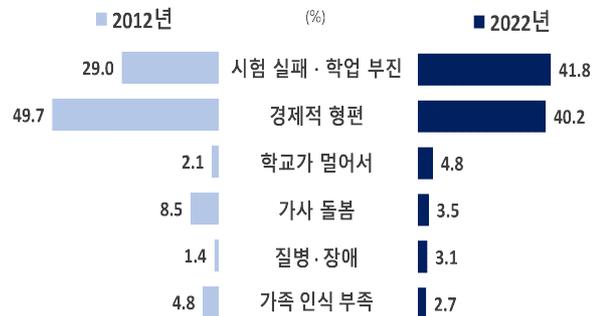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청년 비중은 꾸준히 증가

- '22년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청년의 비중은 83.2%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0년 전(66.3%)보다는 16.9%p 증가함
-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로는, '22년에는 시험실패·학업 부진(41.8%)이며, 10년 전에는 경제적 형편(49.7%)임

< 교육 기회의 충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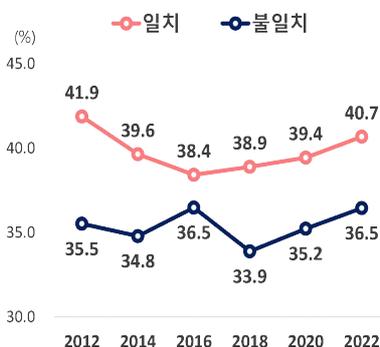
< 교육 기회의 미충족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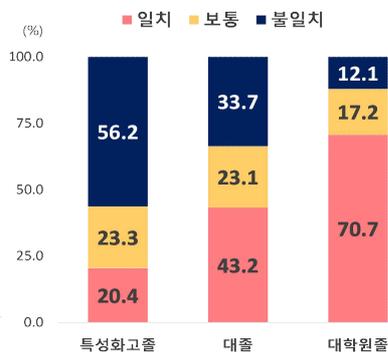
- '22년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중은 40.7%임

-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는 비중이 높아져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의 70.7%가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고 응답함
-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71.3%)에서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비율이 높았고 서비스판매직(23.1%)에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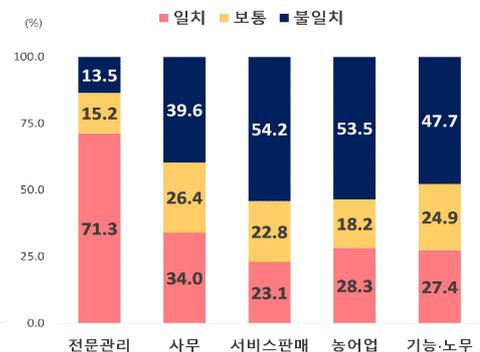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2022, 교육 정도별) >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2022, 직업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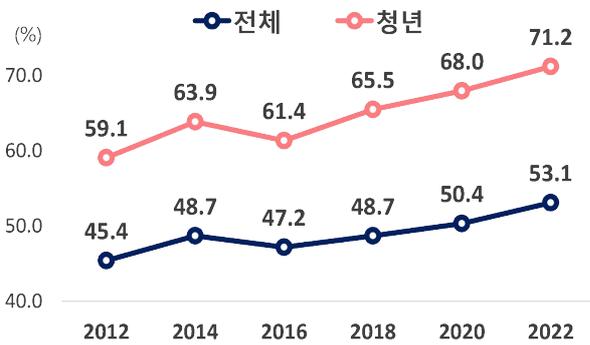
2. 건강평가와 스트레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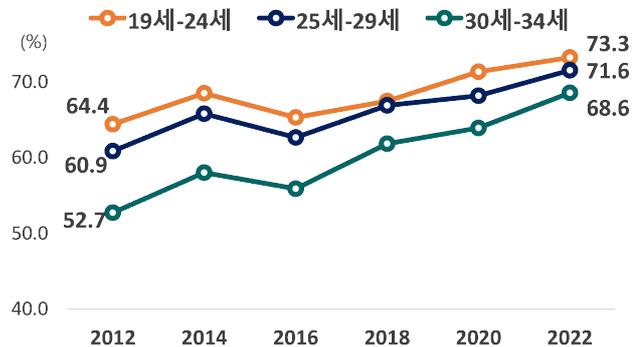
□ '22년 청년 중 71.2%가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10년 전(59.1%)보다는 12.1%p 증가함

○ 모든 연령계층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증가세임

< 건강평가 ' 좋음 ' >



< 건강평가 ' 좋음 ' (연령계층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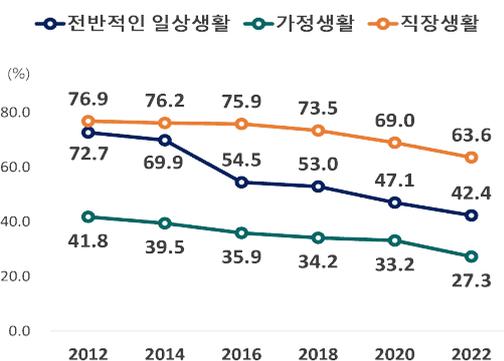


□ '22년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중은 직장생활(63.6%), 전반적인 일상생활(42.4%), 가정생활(27.3%) 영역 순으로 높으며, 모두 꾸준히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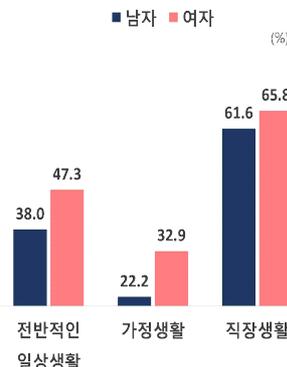
○ 여자가 남자보다 전반적인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영역 모두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 연령계층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일상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 영역 모두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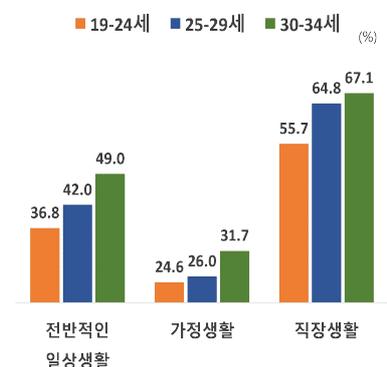
< 스트레스 '느낌' >



< 스트레스 '느낌' (2022, 성별) >



< 스트레스 '느낌' (2022, 연령계층별) >



【참고 1】 주요 인구 통계

(단위: 천명, %, 세)

연도	전체 인구	19~34세 인구	19~34세 구성비			출생성비 ¹⁾	조혼인율 ²⁾	초혼연령	
			계	남자	여자			남편	아내
1980년	38,124	10,617	27.8	28.4	27.3	105.3	10.6	-	-
1981년	38,723	11,073	28.6	29.2	28.0	107.1	10.5	-	-
1982년	39,326	11,444	29.1	29.7	28.5	106.8	9.9	-	-
1983년	39,910	11,761	29.5	30.0	28.9	107.3	10.3	-	-
1984년	40,406	12,052	29.8	30.4	29.3	108.3	9.5	-	-
1985년	40,806	12,306	30.2	30.8	29.5	109.4	9.4	-	-
1986년	41,214	12,643	30.7	31.2	30.1	111.7	9.5	-	-
1987년	41,622	12,894	31.0	31.5	30.4	108.8	9.4	-	-
1988년	42,031	13,182	31.4	31.9	30.8	113.2	9.8	-	-
1989년	42,449	13,434	31.6	32.2	31.1	111.8	9.7	-	-
1990년	42,869	13,731	32.0	32.7	31.3	116.5	9.3	27.8	24.8
1991년	43,296	13,871	32.0	32.7	31.3	112.4	9.6	27.9	24.8
1992년	43,748	13,962	31.9	32.6	31.2	113.6	9.6	28.0	24.9
1993년	44,195	13,974	31.6	32.3	30.9	115.3	9.0	28.1	25.0
1994년	44,642	13,903	31.1	31.8	30.5	115.2	8.7	28.2	25.1
1995년	45,093	13,774	30.5	31.2	29.9	113.2	8.7	28.4	25.3
1996년	45,525	13,594	29.9	30.5	29.2	111.5	9.4	28.4	25.5
1997년	45,954	13,463	29.3	29.9	28.7	108.2	8.4	28.6	25.7
1998년	46,287	13,323	28.8	29.4	28.2	110.1	8.0	28.8	26.0
1999년	46,617	13,272	28.5	29.0	27.9	109.5	7.6	29.1	26.3
2000년	47,008	13,305	28.3	28.9	27.7	110.1	7.0	29.3	26.5
2001년	47,370	13,316	28.1	28.7	27.5	109.0	6.7	29.6	26.8
2002년	47,645	13,272	27.9	28.4	27.3	109.9	6.3	29.8	27.0
2003년	47,892	13,173	27.5	28.1	26.9	108.6	6.3	30.1	27.3
2004년	48,083	12,929	26.9	27.5	26.2	108.2	6.4	30.5	27.5
2005년	48,185	12,623	26.2	26.9	25.5	107.8	6.5	30.9	27.7
2006년	48,438	12,352	25.5	26.3	24.7	107.6	6.8	31.0	27.8
2007년	48,684	12,085	24.8	25.6	24.0	106.2	7.0	31.1	28.1
2008년	49,055	11,853	24.2	25.0	23.3	106.4	6.6	31.4	28.3
2009년	49,308	11,643	23.6	24.5	22.8	106.4	6.2	31.6	28.7
2010년	49,554	11,501	23.2	24.1	22.3	106.9	6.5	31.8	28.9
2011년	49,937	11,508	23.0	24.0	22.1	105.7	6.6	31.9	29.1
2012년	50,200	11,503	22.9	23.9	21.9	105.7	6.5	32.1	29.4
2013년	50,429	11,473	22.8	23.8	21.7	105.3	6.4	32.2	29.6
2014년	50,747	11,453	22.6	23.7	21.5	105.3	6.0	32.4	29.8
2015년	51,015	11,344	22.2	23.4	21.1	105.3	5.9	32.6	30.0
2016년	51,218	11,197	21.9	23.0	20.7	105.0	5.5	32.8	30.1
2017년	51,362	11,044	21.5	22.7	20.3	106.3	5.2	32.9	30.2
2018년	51,585	10,976	21.3	22.5	20.0	105.4	5.0	33.2	30.4
2019년	51,765	10,968	21.2	22.4	19.9	105.5	4.7	33.4	30.6
2020년	51,836	10,956	21.1	22.3	19.9	104.8	4.2	33.2	30.8
2021년	51,745	10,776	20.8	22.0	19.7	105.1	3.8	33.4	31.1
2022년	51,628	10,586	20.5	21.7	19.3	104.7 ^{p)}	3.7 ^{p)}	33.7	31.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향조사」

1) (남자출생아 ÷ 여자출생아) × 100

2) (혼인건수 ÷ 총인구) × 1000

【참고 2】 사회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연혁**
 - 1977 :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구성을 목적으로 최초로 조사
 - 1979~1984 : 총 8개 부문 중 매년 4~5개 부문을 선정하여 조사
 - 1985~1996 : 조사부문을 2~3개로 축소하고 심층조사(항목 수 확대)
 - 1997 : 연 2회(4월, 9월) 조사로 변경(상·하반기 2개 부문씩 조사)
 - 1998~2005 : 연 1회 조사로 변경(3개 부문씩 각 부문별 4년 주기로 조사)
 - 2006~2007 : 매년 3~4개 부문씩 부문별 3년 주기로 조사주기 변경
 - 2008 : 매년 5개 부문씩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주기 변경, 조사 명칭을 「사회통계조사」에서 「사회조사」로 변경
- **조사대상** : 만 13세 이상 가구원
- **조사 기준시점 및 기간**
 - (기준시점) 매년 5월 15일이 포함된 주 수요일
 - (조사기간) 5월 중(16일간)
- **조사방법** :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
- **표본규모** : 약 18,600가구 내 36,000여 명
- **조사항목** :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씩 조사
 - (2022년)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부문 약 80개 항목
 - (2023년) 기본,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 약 70개 항목